

# 기독교 대학에서의 하이브리드 교육을 통한 기독교교육 가능성 탐색

## Exploratory Study on Christian Education through Hybrid Education System in Christian Universities

봉원영  
삼육대학교 신학과

Won Young Bong(bong10@syu.ac.kr)

### 요약

디지털 정보통신의 발달은 여러 미디어 관련 분야들이 융복합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 급속한 변화를 이끌어 온라인 교육의 혁명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교수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교육으로 바뀌게 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반복학습 혹은 반복교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유형(learning style)과 학습 성향(learning orientation)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맞춤형 학습(customized learning)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 속에서도 여전히 면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상호 보완한 하이브리드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은 계속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므로 기독교 대학은 향후 온라인 교육 방식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기독교 고등교육 | 면대면 교육 | 온라인 교육 | 하이브리드 교육 |

### Abstract

The landscap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is changing. Students once spent most of their time in a traditional classroom with a professor, but now they take online and hybrid courses (face to face and online). Some students complete their entire degree in a fully online program. Nearly every type of college in the United States offers online courses. Online learning has clearly moved from a fad to a fixture, and nowhere is that more apparent than at one of the largest universities in the country. As the demand for online course and programs increase, teachers and administrators in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face new challenges. Even though some teachers and administrators still believe online education is inferior to traditional face-to-face learning, we fou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andard measures of learning outcomes between students in the traditional classes and students in the hybrid-online format classes. In this situation, since online education will develop continuously, Christian universities should utilize it variously through complete understanding and research about it predicting the future of online education style.

■ keyword : | Christian Higher Education | face-to-face Education | Online Education | Hybrid Education |

## 1. 서론

최근 들어 정보통신을 포함한 디지털기술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의 네트워크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서로가 상호작용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디어의 사용주체가 정보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 또한 이러한 디지털 정보통신의 발전은 여러 미디어 관련 분야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멀티미디어 혁명으로 이어져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되었다[2].

이처럼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교육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술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생겨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디지털 미디어와 교육 패러다임의 조우는 조화와 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창출하게 되었는데, 마치 미디어의 사용주체가 정보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 것처럼, 교육체제에서도 기존의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졌으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수와 학생이 강의실에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진행되던 면대면 교육방식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이버 교육의 형태는 교육과 경제, 그리고 조직의 성격에 대한 변화를 합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보 및 의사소통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지구촌 교실(global classroom)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으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교육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2].

원격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은 세계 어디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공간적 제약의 탈피가 바로 이 온라인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비슷한 지역 내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같은 수업에 참여할 필요도 없으며 시간적 제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각 개인이 저마다의 학습속도에 맞추

어 학습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온라인 교육은 이러한 이상에 근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숙지하여 개인 과제를 하고 더 나은 적용을 위해 학습하는 과정은 학생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비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동안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면대면 학교교육에 의존할 필요를 없애준다. 학생과 교수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모든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장점들로 인해서 사이버 대학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성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 교과과정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포함하는 과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 비례하여 교과 및 교수-학습 과정의 운영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분명 멀티미디어의 강의콘텐츠가 학습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온라인 수업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이버 학습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별히 원격교육의 운영과 관련하여 넓은 의미로 두 개의 이슈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하나는 원격교육의 실행과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연구와 학문에 관련된 것이었다.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수업 환경과 면대면 환경에서의 학습효과를 비교해 왔지만, 그 결과들을 메타 분석해 보면 특이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것은 온라인을 통한 학습효과가 면대면 강의실 교육에서의 학습효과에 뒤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학습내용의 특성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이 강의실에서의 면대면 수업보다 더 우수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5]. 면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온라인 수업에서 웹기반의 상호작용이 정말로 토론이나 수업참여 등의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토론 등을 통한 상호작용이 훨씬 더 자유롭게 활성화될 수 있음도 발견했다[6]. 온라인 강좌에서 쓰이는 언어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이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요소가 가미될 여지가 없고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학생들 스

스로의 교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령, 대면하는 수업에서 학생의 답변에 교사가 인상을 찌푸리면, 학생은 교사의 비언어적인 암시를 눈치 채고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거나 교정, 혹은 개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은 보다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순한 사실 위주의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삼는 객관주의 방식의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학습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교수-학습에 있어서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온라인 교육의 교수방식은 자연스럽게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특징과 장점들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학들이 선교적 혹은 종교 교육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7]. 이에 대한 연구 역시 개교회 차원에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의 바람직한 선교적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8],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학교가 추구하는 신앙적 이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온라인 교육방식의 새로운 모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조명한 후에 기독교 대학에서 선교적 목적을 위해 활용 가능한 대안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대학에서의 온라인 교육 이해

### 1. 대학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정보통신의 발달은 교육 환경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특별히 대학교

같은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분야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사이버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에 1600백만 명의 학생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코스에 등록했었던 것에 비해, 2010년에 이르러서는 그 숫자가 무려 6천백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미국 대학의 전체 등록생수의 3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9]. 현재 미국에서 61%의 전통 있는 명문 사립대학들과 89%의 일반 4년제 공립대학들이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10]. 이 정도라면 사이버 온라인 교육은 단순한 유행 정도를 넘어선 완전한 대세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미래의 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학들에서 온라인 교육이 이처럼 뜨거운 대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그 현실적이고도 무시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학 차원에서 원거리의 학습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킨 국가라는 점에서 자세히 조사/분석하여 연구해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사업방식을 대학 행정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학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고객들이란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미 대학에서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수들을 식당의 웨이터나 슈퍼마켓의 점원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 간주해 온지 오래다. 이러한 생각의 방식은 강의실 안에서의 주도권이 교수들에게서 학생들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Selingo는 이러한 변화가 지난 십여 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다음의 네 가지 사실들로 인해 기인된 것이라고 분석한다[11].

첫째로는 학비 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의 수업료는 물가 인상분을 월등히 넘어섰는데 4년제 공립대학의 경우 68%나 증가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그 인상분이 39%나 되었다. 2003년에 미국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4

만 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내야 하는 학교는 단 두 곳뿐이었으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수업료 4만 달러를 넘어선 학교들이 224곳이었고, 그 외에 58개 학교는 수업료가 5만 달러를 넘기까지 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면제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수업료는 모든 가정들로 하여금 대학이 단순한 통과의례를 넘어 가정경제의 가장 큰 지출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양질의 학습방법에 대해 눈을 돌리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온라인 교육 방식이었다.

둘째로는, 시간강사들의 증가이다. 미국의 4년제 대학에서 거의 절반가량의 교수들이 시간강사(part-time professor) 혹은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겸임교수로서 별도의 전문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들은 미래에 정식 교수(full-time professor)로서 학문을 연마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대학들은 급변하는 경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교의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능한 정식 교수들을 덜 임용하고 시간강사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기별로 다음 학기의 채용이 결정되는 시간 강사들은 매 학기말에 있는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의해 다음 번 채용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들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거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간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학습의 주도권이 교수에서 학생으로 넘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더 깊은 욕구 충족으로의 갈망은 쉽게 그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옮기는 일들을 빈번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교 안에서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학년이 되어 등록하는 학생수와 끝까지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미국의 대학 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측정기준이 되고 있

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대학들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더욱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거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대학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주(州) 위원들에게까지 나타났는데 루지애나, 오하이오, 테네시를 포함한 다른 몇 개의 주에서는 높은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들에게 상당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지난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특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부분 1982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로, 이 그룹은 자주 “자기 세대”(Me Generation)라고 불릴 정도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필요를 가장 먼저 채우는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세대라고 인식되고 있다. 사실 요즘의 강의 평가서는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다를 것이 없다. 실제로 강의 평가서의 질문의 내용은 “본 과목의 교수는 여러분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켰습니까?”, “강의 시간에 제시된 많은 정보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학생들은 그들이 그 강의가 얼마나 재미있었고 제시된 유인물이나 정보가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짧은 글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 과목에서 얼마나 배웠고 자신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모든 학생들은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personalized service)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고객”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강의실의 교수를 공연자나 연기자 정도로 생각하게 된 까닭이다. 이처럼 앞에서 언급한 지난 십여 년 동안에 미국의 대학들이 경험했던 네 가지 특성들은 디지털 정보통신의 발달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온라인 강의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식으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던 것이다.

## 2. 온라인 교육의 정의와 목적

### 2.1 온라인 교육의 정의와 발달

제3세대형 원격학습인 온라인 교육은 가상교육, 사이버교육, 웹 기반 교수-학습, 이러닝(e-Learning) 등으

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12]. 오늘날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이라는 가장 범용적인 네트워크를 기본적인 학습 환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한데, “최근에는 학습내용을 단순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정도에 따라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동료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연계하여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13]”.

일정한 공간에서의 면대면 수업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의 형태는 우편 제도를 이용한 통신 교육(Correspondence Education)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중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통신 교육이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이버 교육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의 시대가 그것이다. 이 시기는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각종 교육 내용이 전달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교육방법이 실행되기도 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교재와 대중매체에 의지해 온 사이버 교육을 한계를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이전까지의 사이버 교육이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와 지식 전달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들, 혹은 학습자들 간에 서로의 의견을 상호교환하면서 면대면 수업에서 거둘 수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효과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14]. 이러한 원격교육 개념의 3단계 발전과정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의 한 형태로서 출현하게 된 것이 사이버 대학이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지금의 사이버 대학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보다 넓은 의미로써는 앞서 언급된 세 단계의 교육형태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세 시기를 거치면서 그 개념적 특성이 구체화된 세 번째 단계의 교육 형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15]. 원격교육의 두 번째

시기인 1972년에 출현한 방송통신대학이 초기에는 라디오를 교육매체로 이용하였고 다시 TV의 보편화와 더불어 TV를 주된 교육매체로 이용하다가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는 오늘날 온라인 교육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2.2 온라인 교육의 목적

온라인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적인 요소가 기능적인 요소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3]. 온라인 교육이든 이러닝(e-learning)이든 그 표현 속에 나타난 교육(혹은 배움)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목적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경험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16].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교육의 경험을 만들어 주고 지식과 성과를 향상시킴으로 지식의 습득 곧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학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체제로써 그 목적이 기술이 아닌 학습과 교육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13].

## III. 온라인 교육과 하이브리드 교육

### 1.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

첫째,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유형(learning style)과 학습 성향(learning orientation)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맞춤형 학습(customized learning)이 가능하게 된다[13].

둘째, 온라인 교육은 학습자-교수자, 학습자-학습 자료와의 비동시적/동시적 상호작용을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인 면대면 강의실 수업보다 더욱 능동적인 학습자를 만들어 내게 함으로 학습경험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다. 학습자가 스스로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고 분석하여 자신의 문제해결과정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학습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사이버 교육이 면대면 수업에 비해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학습을 구현하기 때문인데 비동시적 온라인 토론학습, 질의응답 등과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경험을 도울 수 있다. 실제로 사이버 교육에서의 토론학습은 비동시적으로, 구두가 아닌 문자로, 즉시가 아닌 시간을 두고 성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면대면 수업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4].

셋째,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개인적인 이유로 적령기 학습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재교육의 기회를 희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의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배움을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은 온라인 교육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온라인 교육은 공존지수의 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교육에서 중심 가치로 대두되어 왔던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가 아닌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Q(Emotional Quotient; 정서지수), SQ(Social Quotient; 사회성 지수), MQ(Moral Quotient; 도덕지수), CQ(Creative Quotient; 창의지수) 등의 다양한 지수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능력과 달리 그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 NQ(Network Quotient; 공존지수)이다. 공존지수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를 수치화한 것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자격을 가늠해 보는 잣대가 된다. 공존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가 쉽고, 이를 통해 얻는 것을 바탕으로 더 성공하기 쉽다는 개념이다[17].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능력만이 강조되는 IQ(지능지수)와 EQ(감성지수)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시대에는 자신의 몸을 낮춰 형성된 인맥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성

공조건의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온라인 교육의 환경에서 토론학습, 협동학습, 조별 프로젝트학습 등의 모습으로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다[4].

다섯째, 최근의 사이버 공간은 전문가나 엘리트의 지성과 권위가 아닌 일반 대중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강조되고 있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협력이나 경쟁의 과정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얻어진 능력과 지성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의 발전은 지식을 생산하고 거래하고 교환하는 네트워크들이 얼마나 유연하고 역동적인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18]. 김성완은 이 집단지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홀로 생각하기(cogito) 보다는 함께 생각하기(cogitamus)에 중점을 둔 다양성, 타인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는 독립성, 분산된 정보의 통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8]. 그런데 이러한 집단지성 형성의 과정은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의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들 간의 의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통합된 지성에 도달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식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특징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은 대안적 교수/학습방법으로 주목받기에 충분한 교육적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하이브리드 교육

### 2.1 온라인 교육의 한계

온라인 교육이 앞서 열거한 다양한 효과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어 그것이 학교의 면대면 교육을 완전히 대체하고 교실에서의 교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막연한 환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촉이 면대면을 통한 접촉을 완전히 넘어서기 어렵고 모든 유형의 학습이 사이버 공간에 적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유형의 학습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은 때때로 “아무도 수강하지 않는 가장 훌륭한 코스(the most wonderful course that no one takes),” 혹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가장 재미있는 코스(the most interesting course that teaches you nothing)”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19]. 물론 온라인 교육이 이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학습자 입장에서의 학습경험보다는 교수자, 교수설계자, 운영자의 입장에서 비용 효과적 내용전달을 위주로 개발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19]. 따라서 면대면 교육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교사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서 생겨난 것이 하이브리드 교육 혹은 블렌디드 이러닝(blended e-Learning)이다.

## 2.2 하이브리드 교육

하이브리드 교육은 ‘혁신적 정보기술 발전에 기초한 온라인 학습과 상호작용적 참여를 동반하는 전통적 학습을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 학습 혹은 원격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온라인 수업과 전통적 교실수업을 혼합한 것이다. 비슷한 개념을 다른 용어로 블렌디드 이러닝(blended e-Learning)으로도 불리기도 있으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다[20]. 이것은 온라인 교육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면대면 방식의 장점을 수용하여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학습 전략을 혼합하여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1]. 멀티미디어 기술과 통신환경의 발달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학습패러다임이 생성되어 교사의 역할이 바뀐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간의 기본적 상호작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멀티미디어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Caulfield는 이것을 학생과 교사가 마주하는 면대면 시간(face time)이 강의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에 의해 줄어드는 수업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22].

## 2.3 하이브리드 교육의 효과성

다양한 연구는 전적인 온라인 수업이나 혹은 전적인 면대면 수업보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섞었을 때, 교육적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질적인 향상이 나타났음을 증명하고 있다[23].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에서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을 활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유용성으로는, 첫째,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수업이 갖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학습의 장을 확대시켜 주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정보전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별화학습을 촉진하고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면대면 강의실 수업과 온라인 사이버 수업의 결합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넷째, 지식과 정보전달 체계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 교수학습 운영체제의 지속적 확보를 통해 수업결손을 감소시킬 수 있다[24].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교육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이 교육방식이 가지는 멀티미디어 도구를 이용한 상호작용적 특징으로 인해 주로 영어 등의 효과적 언어 교육 차원에 국한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온라인 예습-오프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온라인 복습, 격주제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등의 하이브리드 교수모형을 각각 연구하여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면에서는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반면에 이 방식이 면대면 수업과 비교하여 학습 성취도 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업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언어영역의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전공과목 수업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25].

이러한 이유로 MIT와 UC Berkeley와 같은 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도 대부분 전통적인 강의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통적 교실수업과 온라인

표 1. 대학에서의 면대면 수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교육 적용 연구와 그 효과성 확인[25]

운영 방식	수업구조	연구자	학과목	하이브리드 교육 형태	연구 결과
면대면 수업에 온라인 수업을 혼합	수업차시를 분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혼합	이현주 (2012)	영어	면대면 수업 후 개별로 온라인 학습 진행	다양한 상호작용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성치경 (2011)	한문	온라인 10주 이러닝 6주	이러닝 학습시스템 접속횟수와 접속시간은 학업성취도와외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
		한지영 외(2010)	보건교육학	온라인 6주 오프라인 7주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이러닝 지각 정도는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수업시수를 온/오프라인으로 분할	임정훈 (2007)	교육심리학	통제집단: 면대면 실험집단: 4주 혼합형, 8주 혼합형	학업성취도: 4주 혼합형(면대면)8주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성취전략을 사용할 경우 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김준호 외(2010)	관리회계	면대면 2시간 온라인 1시간	강의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과제 해결과정에서 성취감이 높았음
	수업 분할 없이 온/오프라인 방식을 끝까지 병행	유중정 외(2009)	교육심리 컴퓨터구조	A형: 온라인 7주, 면대면 6주 B형: 2시간 면대면+1시간 온라인	학업성취도: 유의한 차이 없음 수업만족도: A형보다 B형이 높았음
온라인 수업에 면대면 수업을 혼합	최윤경 (2011)	기초중국어	온라인 설명 위주 면대면 회화 실습	하이브리드 수업에 대한 수업만족도가 92%	
기 타		정숙경 (2010)	사이버 영어수업	실문과 인터뷰 실시	시간절약의 목적으로 수강하는 사이버 수업의 장점은 유지하고, 교수자와외의 온라인 채팅을 통한 하이브리드 교육을 선호함
		김미영 외(2005)	컴퓨터기술	통제집단: 온라인반, 오프라인반, 실험집단: 하이브리드반	학업성취도: 차이 없음 학습참여율: 온라인반<하이브리드반 수업만족도: 온라인반<하이브리드반

인 교육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26]. 그러나 하이브리드 과목의 이러한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목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적절한 수업주기(cycle)의 선택과 혼합 방식, 혼합 등의 최적화된 교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고 있다[25].

### 2.4 하이브리드 교육의 유형

현재의 하이브리드 교육방식은 크게 자료기반 수업이나 상호작용 중심 수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인상호작용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형태로서, VOD 활용형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것은 강의 내용을 실제 강의실이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여 수업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인데, 오프라인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예습이나 복습, 또는 심화학습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인 상호작용 중심 수업은 온라인 공간이 교수자와 학습자들,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무대가 되는 수업 형태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강의실에서의 면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토

론학습, 온라인 조별학습, 비디오컨퍼런싱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4]. 온라인을 통한 토론방식은 단순히 지식 전달의 목적보다는 비판적이고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켜 어떠한 개념이나 사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내용에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소그룹으로 구성된 온라인 조별학습은 구성원들 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공존지수의 개발을 도와준다. 비동시적 상호작용인 온라인 토론학습이나 조별학습에 비해 채팅이나 비디오컨퍼런싱은 동시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이 방식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4].

### 3. 기독교 교육과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

그렇다면 이처럼 분명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교육적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독교 교육이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거나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전통가치를 옹호하고 점진적이고도 안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온라인 방식을 이용한 교육방법이 기존의 면대면 교육에 비해 학습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에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들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에 빠져 헤어날 수 못하고, 각종 성인사이트의 범람은 비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문화를 기독교 교육에 접목 혹은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셋째, 성스러운 기독교 교육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한 교회의 심리적 불편함도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는 교육,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면서 그것은 이제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서도 보편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이러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급변하는 정보지식사회에서 인터넷이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교회학교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대는 무조건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교육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하이브리드 교육모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 3.1 기독교 교육의 특성

역사적으로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교육이 피교육자로 하여금 문화적 유산과 조직된 경험에 접속하게 한다는 채워주는 작용(in filling)으로 보는 개념과, 피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질과 흥미를 발견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독자적 생활방식을 수립하도록 이끌어내는 과정(drawing out)으로 보는 개념이다[27]. 이러한 이해와 더불어 기독교 교육은 인생, 그리고 인간 인격 내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내용지식을 산출하는 교육체계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성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의 공급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기독교 교육은 결코 개인생활만을 다루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적 개인적 성장을 함양하는 신체 내의 모든 과정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

그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 한 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기독교 교육 접근방식의 어느 것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28].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은 능동적인 참여,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기꺼이 참여해 들어가려는 노력, 소그룹과 공동체의 지지, 인간의 경험 밖에 있는 진리의 원천에 대한 인식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28].

### 3.2 하이브리드 교육 안의 기독교 교육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특징들은 온라인 교육과 면대면 교육의 혼합모델인 하이브리드 교육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하이브리드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공통적 특징들

하이브리드 교육	기독교 교육
온라인을 통한 토론	능동적 참여
소그룹을 통한 온라인 조별학습	소그룹과 공동체
대인관계의 향상과 공존지수의 개발	다른 사람의 삶에 기꺼이 참여함
온라인 환경에서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제한을 극복함	인간의 경험 밖에 있는 진리의 원천에 대한 인식
면대면 수업을 통한 관계 증진	관계의 중요성
가장 최선의 효과성을 포함	지적 성장만이 아닌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함

하이브리드 교육은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들 간의 기본적 상호작용 속에서 효율적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 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그룹별 토의활동 등은 소그룹과 공동체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적 제한을 극복하여 언제 어디서든 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교육이 가지는 특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까지 대학의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학과목들에 하이브리드 교육모델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효과성을 거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 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육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적용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IV. 대학에서의 온라인 교육의 미래적 전망에 따른 기독교 대학에서의 적용

미래의 고등교육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강의실에서 교수의 자리를 대신한다거나 모든 교육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마치 오늘날의 학생들이 지금의 대학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십년 전의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것과 많은 부분 달라진 것처럼, 미래의 대학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의 온라인 교육의 동향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미래에는 다음의 네 가지 변화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11].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는지를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 맞춤형 교육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교육은 대학의 형태나 크기, 위치한 지역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에 의한 교육방식(one-size-fits-all model)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3월에 시작하는 학기제를 따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수강신청을 하며,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의실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그 강의실에서 교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진도를 나간다. 그러나 실상 모든 학생들의 수준은 같지 않다. 열여덟 살에도 대학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이 있겠지만,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은 과목을 수강해도 어떤 학생은 배운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예습까지 가능한 반면, 어떤 학생은 배운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은 기독교 대학에서의 종교 교육이나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양필수 과목으로 인성 교육 영역에서 일정기간 기독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평가방식과 여러 교육정책들로 인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생존이라는 당면과제로 심각한 도전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학대학교들조차도 비기독교인들의 입학 허용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여러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건학이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다수의 구성이나 학교운영방식이 그 이념과 정신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기독교대학 안에서 기독교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생들의 신앙적 배경이나 이해정도가 모두 똑같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교내에서 그러한 소수의 기독교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종교적 활동 등이 그들 안에서 적절한 신앙적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신앙을 지닌 일부 학생들의 고립된 형태로 남을 가능성도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신앙적 차이를 가진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면대면 수업을 받게 하기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상에 따라 적절한 진도와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복학습 혹은 반복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개인별 맞춤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29].

2011년 가을, 미국의 6개 공립대학교에서 면대면으로 통계학개론을 수강하는 60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의실에서의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온라인 강의와 면대면 수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식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는데, 이 연구에서 온라인과 면대면 수업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했던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자기 동기유발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30]. 이러한 사실은 또한 기독교 과목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다.

면대면 수업이 대상의 수준에 따른 진도나 학업진행을 어렵게 하는 반면, 온라인 강의 역시 인터넷 연결 유무나 속도 등의 학습 기반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좌우

되고 면대면 수업이 가지는 장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요하다. 가령, 기독교 과목 수업에서 적절한 토론 주제를 미리 준비해 놓고 2주 정도의 시간을 주어 면대면 교육과는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의 진행 내용 관련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강의실에서 다루면서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깊이 있는 사색과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교리와 같은 이론 중심 강의에서는 잘 구성된 강의 교재를 파워포인트 형태나 html로 사전 제작하여 수업 내외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강의실 수업과 병행하는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인성교육과 선교의 목적으로 채플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채플에 일정부분 이상 결석한 학생들에 대한 보충채플 혹은 보충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메이크업(make-u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는 여기에 무엇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지를 연구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한 보충방법도 개발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물론 신과의 만남으로 인식되는 신성한 예배를 어떻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가상의 공간을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사이버)처치나 수많은 동영상의 선교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을 기억할 때 이것의 효과는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2. 하이브리드 러닝

지난 이십여 년 간, 사이버 대학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계속하여 인상되는 수업료에 대한 대안이 되어 왔고, 등록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대학은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같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매우 의미 있는 시장성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온라인 강의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유수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온라인 강의가 면대면 수업에 비해 그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뿐더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수강의 기회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장점과 동시에, 학교의 입장에서 면대면 수업 진행에 필요한 수의 교수로도 동시에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31].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혹은 교사의 역할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이 보이는 분위기에 따라 수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자신들의 열정, 전문지식, 경험 등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강사 중심의 면대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이다. 만약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면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들 모두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커다란 강의실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이동은 경비가 많이 들게 된다. 또한 강사 중심 교육의 두 번째 문제는 시간인데, 이것은 가르치는 교수에게나 학습자들 모두에게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는 시공간에서 강사의 모형을 확장시킴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이 방법은 짧은 시간과 제한적 숫자의 교수자들로도 보다 많은 학습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19].

이것은 다수의 비기독교학생들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당면한 선교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 및 대학의 성격에 따라 각 기독교 대학들의 설립이념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는 기독교 이념을 토대로 한 지성인을 육성하고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선교하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대학은 교내의 모든 행사를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행하고 채플을 실시하며, 기독교의 이해를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32]. 그런데 비기독교학생들에 대한 기독교 대학의 다양한 선교적 접근을 위해서는 선교열정을 가진 많은 자원들(resources)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는 선교보다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선교방법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요

즘 전체 가입자수 12억 명을 넘어선 페이스북(facebook)을 활용이 그 좋은 예가 된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익명간의 교류가 아닌, 대부분 실명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대화를 걸듯 매우 친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12억 명의 사용자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페이스북의 관계망은 어느 전달매체보다 확산력이 빠르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SNS 사용이 가속화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인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7].

본 연구자는 본인의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페이스북 계정을 공지하고 친구를 맺게 하여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주어진 토론의 주제에 따라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해당 학기의 해당 수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어나 그 다음 학기에도 여전히 친구관계로 남아있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본 연구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 주체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요체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보다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33].

이준은 교수소통이론(instructional communication theory)을 언급하면서 교수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감 형성과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영향은 교수와 학습자의 친근함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34].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온라인 교육과 비교해 직접적으로 그 관련성에서 벗어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인터넷과 가상공간을 이용하고 기독교 대학에서 선교적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 3. 학위취득 제도의 변화

휴대폰이 시장에 출시되던 초창기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 소비자는 통신 회사에서 정해놓은 몇 개 안되는 옵션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소비자의 나이, 통화량, 소통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이제는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앨범 전체를 살 필요가 없어졌다. 그저 아이튠즈(iTunes)에 원하는 곡만을 내려 받으면 자기만의 연주곡 목록을 만들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은 입학에서부터 졸업의 순간까지 학생들의 선택사항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한 묶음으로써 일괄 판매되는 서비스(a bundled service)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기관들 중의 하나였다. 그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개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일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어왔다. 즉 대학들은 다른 대학 혹은 기관에서 수강하여 얻은 학점들의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은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이동성이 강하다. 미국에서는 졸업하기 이전에 학교를 옮기는 학생들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11]. 이것은 학교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Selingo는 미래의 고등교육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가 그렇게 다양하게 변화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11].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 대학에서의 선교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선은 학교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장을 넓혀 주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이다. 정보 사회, 첨단 기술, 세계 경제, 분권화, 참여 민주주의, 자립, 네트워킹, 다양성, 공동체 그리고 주관성 등은 현재 포스트모던 시대의 복음 수용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은 포스트모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데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성은 포스트모던 사람들의 두뇌 속에 장착되어있는 하나의 기능으로,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대화하는 형태를 띠며 쌍방향미디어를 이”루고 있다. 인쇄물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이 모두 일방적인 미디어인 반면, 전화와 웹으로 연결되어있는 사이버공간은 쌍방향 소통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35].

그래서 박보경은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험, 참가, 이미지 지향적, 쌍방향 소통, 관련성이 포스트모던 선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36]. 이 시대에는 관계중심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고독과 파편화된 인간관계 가운데 진정한 관계형성을 갈망하는 포스트모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접근이 매우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박보경은 이러한 관계중심 전략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는 소그룹 활동을 제안한다[34]. 소그룹 활동에는 단순히 관계뿐 아니라 경험의 요소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교육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문화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35]. 온라인 교육의 장점 중의 하나가 토론이다. 물론 면대면 수업에서도 강의실에서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토론은 현장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된 수업시간 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토론의 내용도 수업이 끝나는 순간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의 경우 토론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토론게시판(discussion board) 혹은 자유게시판의 이용이 그것인데,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과제를 게시판에 정해진 시간 안에 올리도록 한다. 또한 학급 동료가 올린 글(posting)에 대한 일정 횟수 이상의 의견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고 답변을 하다보면 게시판이 무한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한정된 시간 내에 토론을 끝마쳐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의견을 지속적으로 달 수 있어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이러한 토론 운영은 구성원들 간에 상호의견을 교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관계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생겨난다. 이야기는 힘

이 있고 논리보다 좋은 대화 방법이다. 포스트모던 사람들은 이야기식 화법에 익숙하여 개념, 이론, 교리까지 이야기 형태로 듣기 원한다. 스토리텔링 스타일은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기별에 힘을 실어 주고 관련성을 높여 준다. 바울 또한 영혼의 회개를 위해 설교와 가르침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 전영미는 디지털 시대인 지금에도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참여시키고 자신의 이야기로 재변형시켜서 창조적 접근을 시도하게 함으로 이를 종교 교육적 목적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7].

소셜 미디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 집중을 이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38].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혹은 기독교 대학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학생들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환경에서 그들의 원하는 바들을 찾아 그들의 언어와 방식을 이용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할 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해외의 많은 사이버 대학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지도(tutoring) 제도를 적절히 운영한다면 단순히 학과목의 차원을 넘어선 신앙적인 접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14].

#### 4. 유동성 있는 학업 운영

요즘 전통적 대학 강의실은 전체 시간의 약 40퍼센트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강의실은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사용되지 않으면서 주중에만 학생들로 가득차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 컨설팅 회사는 노스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의 델러스(Dallas) 캠퍼스를 설계하면서, 새로운 대학의 운영비의 60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봄과 가을에만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자신들의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함으로 강의실을 쉽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다[11].

이처럼 대학에서의 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유동성 있는 학업 운영은 대학 교육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왜 대학은 4년간 다녀야 하는가? 왜 대학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왜 한 학기는 15주인가?

온라인 교육과 같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배움의 기술은 각 개인의 배움의 속도에 따라 그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다음 코스로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반대로 학습 부진아들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을 더 들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수해오고 있는 학기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개인화(personalization)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의 학습능력과 속도에 따라 그것을 끝마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사력(academic calendar)을 해체시킨다. 또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기 전에 대학 과정의 학점을 별도로 취득하거나 전문학사의 학위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 사이의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러한 구조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학에서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독교 대학이 학기 중에 개설될 기독교관련 과목을 학생들의 개인 일정에 따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미리 수강하게 하면서 개별적인 튜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비교적 시간의 여유를 두면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일부 대학들이 해외의 우수한 대학들과 온라인 원격 교육시스템을 통한 학점교류제를 실시하여 외국 대학의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14], 한국의 기독교 대학이 해외의 기독교 대학들과 일부 학과목에 대한 학점교류제를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지는 기독교 대학에서도 정해진 학기 외에도 언제든지 학생들이 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유동성 있는 학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대세가 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방식을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디지털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들 가운데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교육의 혁명으로, 기존의 교수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교육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학습공간의 확대, 학습경험의 확장, 학습기회의 확대, 공존지수의 개발, 그리고 롱테일(long tail) 법칙의 실현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의 학습이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것이 아니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유형의 학습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래서 생겨난 교육방식이 하이브리드 교육으로, 이것은 온라인 교육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먼대면 방식의 장점을 수용하여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학습 과정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온라인 교육은 계속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므로 기독교 대학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을 확인했다.

McLuhan은 “우리의 시대는 장벽을 넘는 시대이며, 낡은 카테고리를 제거하는 시대이다. 즉 그것을 두루 탐색하는 시대이다. 외견상 이질적인 두 가지의 사물이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새롭게 독특한 방법으로 어떻게 동일하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발견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39]. 대학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갈수록 감소하면서 대학들 간의 생존경쟁이 더욱 심해진 가운데, 학생들은 학교를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기업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습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여 “고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과 맞물려 정보통신의 발달로 더욱 활기를

띠게 된 온라인 교육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권리가 계속되는 한, 온라인 교육은 점차 진보해 나갈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곧 기독교 대학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 지혜롭게 성찰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McLuhan이 말한 “시대”가 오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론 이것이 미래에 지금의 오프라인 강의실 교육을 온라인 교육이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유동성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독교 대학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주연, *원격교육과 면대면 교육 매체의 특성에 따른 효과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 김호근, 최성, *21세기 사이버 대학 가이드*, 한국경제신문, 2002.
- [3] 이의길, *온라인교육에 대한 교수자 인식 및 수업 전략*,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006.
- [4] 이혜정, *내 강의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Blended e-Learning 교수전략*, 교육과학사, 2009.
- [5] R. delMas, J. G. delMas, A. Ooms, and B. Chance, “Assessing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after a first course in statistics,” *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Journal*, Vol.6, No.2, pp.28-58, 2007.
- [6] Y. Inoue, *온라인 교육과 평생학습*, 미래교육공학연구회 역, 아카데미프레스, 2010.
- [7] M. A. Maddix, “Developing online learning communities,” In M. A. Maddix (Ed.), *Best practice of online education*, pp.31-40,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2.
- [8] 김광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미디어적 이해”, *기독교교육정보*, 제38집, pp.177-206, 2013.
- [9] The Sloan Consortium, *Going the distance: onlin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1. [http://sloanconsortium.org/publications/survey/going\\_distance\\_2011](http://sloanconsortium.org/publications/survey/going_distance_2011).
- [10] Pew Research Center, *The digital revolution and higher education*. <http://www.pewsocialtrends.org/2011/08/28/the-digital-revolution-and-higher-education/>
- [11] J. J. Selingo, *College (Un) bound: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nd what it means for students*, New Harvest, 2013.
- [12] 정영식, 박종필, 정원식,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2012.
- [13] 박종선, *스마트 이러닝*, 교문사, 2013.
- [14] 백윤철, 김상겸, 이광진, 황준성, *해외 원격대학의 현황*, 한국학술정보, 2007.
- [15] 김은순, *원격대학의 정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6] W. Horton, *이러닝 설계*, 김세리, 하승연, 우영희, 박성희 역, 아카데미프레스, 2009.
- [17] Nicesong, *공존지수(NQ)란?* <http://blog.daum.net/philosong/8786950>, 2013.
- [18] 김성완, *이러닝 2.0과 교육*, 양서원, 2012.
- [19] J. Bersin, *The blended learning book: best practices, proven methodologies, and lessons learned*, John Wiley & Sons, 2003.
- [20] B. Ross and K. Gage, *Global perspectives on blended learning: Insight from WebCT and our customers in higher education*, In C. G. Bonk (Ed.), *The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pp.155-168, Pfeiffer, 2006.
- [21] 박성익, 이상은, 송지은, “블렌디드 러닝에서 효과적 온/오프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 강좌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Vol.5, No.1, pp.17-45, 2007.
- [22] J. Caulfield, *How to design and teach a hybrid*

course. Stylus Publishing, 2011.

[23] 이혜정, 홍영일, 손지영, “Blended e-Learning 환경에서 학생 간 온라인 피드백 유형이 학업성취도, 만족도,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집, 제3호, pp.131-157, 2007.

[24] 김준호, 김태석, “대학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관리회계교과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31집, pp.111-127, 2010.

[25] 최병수, 유상미, “대학 강의실 수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H형 블렌디드 이러닝 적용 효과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제16권, 제3호, pp.49-60.

[26] 김동일, 이해정, 손지영,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Blended e-Learning 체제 정착 방안 연구: S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6집, 제4호, pp.97-123, 2005.

[27] 이숙중,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8] L. O. Richards,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Zondervan, 1972.

[29] 김재광, *온라인 교육, 세상을 바꾸다*, 좋은 땅, 2013.

[30] W. G. Bowen, M. M. Chingos, K. A. Lack, and T. I. Nygren, “Interactive Learning Online at Public Universities: Evidence from Randomized Trials,” Ithaca S+R, May 2012.

[31] W. G. Bowen, *Higher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32] 봉원영,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위기 극복을 위한 그리스도인 교수 인성 개발에 대한 연구”, *학문과 기독교세계관*, 제7집, pp.33-61, 2013.

[33] J. Bozarth, *Social media for trainers*, Pfeiffer, 2010.

[34] T. P. Mottet, V. P. Richmond, and J. C. McCroskey, *Handbook of instructional communication*, Pearson Education, 2006.

[35] L.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좋은 씨앗, 2002.

[36] 박보경,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진도전략의 모색”, *장신논단*, 제29집, pp.211-237, 2007.

[37] 전영미,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종교교육적 활용”, *기독교교육정보*, 제28집, pp.143-166, 2011.

[38] 전영미,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기독교교육적 활용”, *기독교교육정보*, 제30집, pp.101-125, 2011.

[39] M. McLuhan and Q. Fiore, *The medium is the massage*, Gingko Press, 1996.

저 자 소 개

봉 원 영(Won Young Bong)

정회원



- 1998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신학석사)
- 2010년 5월 : 미국 Andrews University(목회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리더십, 교육 콘텐츠